

청년층의 약물남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태도 조사

최봉실, 박정숙*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A survey of general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drug abuse among young people

Bogn-Sil Choi, Jeong-Sook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Namb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청년층의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 보기위해 분석 가능한 설문지 1076부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청년들의 성별을 보면 남자 699명, 여자 377명이고 남용약물 중 필로폰, 대마, 본드, 프로포폴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남용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384명(35.7%) 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용약물이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가 249명(23.1%), 잘 모른다는 442명(41.1%)로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약물남용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강력한 처벌이 53.6%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학교 필수교육 53.5%로 나타났다. 따라서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 사업이 좀 더 현실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약물 남용에 의한 약물 중독은 거의 대부분이 재발될 수 있으므로 재활 대책 수립은 필수적이며 약물사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청년층, 약물남용, 인식, 태도, 예방교육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 drug abuse among young people entering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d analyzed based on 1076 analytic questionnaires. Looking at the gender of the young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699 men and 377 women had high awareness of methamphetamine, marijuana, bond, and propofol among abused drugs. It was found that 384 people (35.7%) were well aware of the dangers of drugs of abuse, but 249 people (23.1%) were well aware of the various problems caused by drugs of abuse, and 442 said they did not know. The number of people (41.1%) was almost twice as high. As for the desirable method to improve the problem of drug abuse, strong punishment were the highest at 53.6%, and school essential education was found to be an effective educational method for drug abuse prevention at 53.5%. Therefore, publicity or education projects for drug abuse prevention should be conducted more realistically, and a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that young people can empathize with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it should help to establish a sound foundation for becoming an adult through proper education.

Key Words : Young people, Drug abuse, Perception, Attitude, Prevention education

*This study was supported(in part) by research funds from Nambu University, 2021

*Corresponding Author : Jeong-Sook Park(pk0207@nambu.ac.kr)

Received November 16, 2021

Revised December 10, 2021

Accepted March 20, 2022

Published March 28, 2022

1. 서론

청년층은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기[1]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년층은 심리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동료집단의 압력, 취업과 경제적 문제, 자아정체성 혼란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약물에 대한 오남용과 같은 요인들이 약물 남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2,3]. 약물 남용에 의한 약물 중독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가족과 친구, 사회 등으로 확산되며, 전염성과 유행성으로 한번 중독된 경우 다른 일반적인 질병에 비해 재발의 위험이 매우 높다 [4,5].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약물중독자의 법적 처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와 국가 모두가 함께 예방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최근의 약물남용 실태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하여 20~30대의 약물남용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대마 사용률은 성인들 보다 청년층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6,7]. 또한, 2019년 5월 경찰청의 마약 사범 분석 자료를 참고하면 연령별로 20~30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년층의 약물 사용 실태와 인식, 태도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비해 거의 부재한 현실이다[8]. 청년층은 청소년들에 비해 술과 담배 그리고 본드, 니스 등의 흡입물질과 같은 남용약물과 불법적인 약물의 상습적 남용이 가능하며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에 의해 구입이 가능한, 합법적인 약물에 대한 접근도 보다 용이하다[9,10]. 그러므로 청소년 못지않게 대학생과 같은 청년층의 약물남용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11]. 국내 마약류 사범의 증가는 기존 마약류 사범뿐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도 해외여행의 증가와 인터넷, SNS 등의 발달에 의해 손쉽게 마약류를 접할 수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되므로[12], 웹 사용이 활발한 청년층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청년층의 사회적 비중의 중요성과 중요한 생애주기 과정에 비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13].

2. 연구방법

2.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 청년층의 약물남용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에 대해 조사하여 약물남용 예방활동과 교육,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19세 이상인 J지역 내 5개 대학교와 2개 전문대학의 대학생과 34세 이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는 총 1076명으로 남성이 699명 65.0%, 여성이 377명 35.0%이고, 설문지는 총 1,300부를 배부하여 내용이 불충분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없는 224부를 제외한 1076부의 유효 설문지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설문지 개발

본 조사의 대상자는 J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로서 자기 기입식 설문지법으로 실시하였다. 선행자료[14] 및 문헌을 기초로 작성한 설문지를 사전 검사 후 사용하였으며 설문 내용은 청년층의 일반적인 특성, 음주와 흡연에 대한 실태 3문항, 남용약물의 종류 인식 13문항, 남용약물 폐해에 대한 인식 3문항, 남용약물에 대한 인식 개선 방향 2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약물에 대한 인식은 권인숙[15]이 작성한 설문지(Cronbach's α =.8328)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2.4 자료 분석방법

총 청년층의 약물남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및 태도를 분석하고 설문지 코딩 및 통계처리는 SPSS(Version 24)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청년층의 일반적인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J 지역 청년층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자 총 1076명 중, 남성이 699명(65.0%), 여성이 377명(35.0%)이고, 나이는 10대가 715명(66.4%), 20대가 260(24.2%), 30대가 101명(9.4%)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판매/서비스직이 26명(2.4%), 전문/자유직 70명(6.5%), 사무/기술직 77명(7.2%), 경영/관리직 6명(0.5%), 생산/운수직 11명(1.0%), (전업)주부 8명(0.7%), 대학생 772명(71.8%),

무직 106명(9.8%),이었다. 건강상태는 '건강하다' 429명(39.9%), '매우 건강하다' 418명(38.8%), '보통이다' 189명(17.6%), '건강하지 않다' 32명(3.0%), '매우 건강하지 않다' 8명(0.7%)순으로 나타났다.청년층의 음주와 흡연은 연령, 성별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과도 밀접하다[16]는 보고가 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young people (N=1076)

		N	(%)
gender	male	699	65.0
	female	377	35.0
age	teenager	715	66.4
	20's	260	24.2
	30's	101	9.4
job	Sales/Service Jobs	26	2.2
	Professional/Freelance	70	6.5
	office worker/technical worker	77	7.1
	management/management position	6	0.5
	production/transport job	11	1.0
	housewife	8	0.7
	College student	772	71.8
	inoccupation	106	9.8
health status	very healthy	418	38.8
	healthy	429	39.9
	average	189	17.6
	not healthy	32	3.0
	not very healthy	8	0.7

3.2 청년층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실태

J 지역 청년층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실태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자 총 1076명 중 음주를 '한다'가 453명(42.1%), '안 한다' 623명(57.9%)으로 나타났으며, 음주 시작 시기는 응답한 453명 중 '20대' 227명(50.1%), '10대' 225명(49.6%), '30대' 1명(0.3%) 순으로 나타났다. 소주 기준으로 1일 음주량에서는 음주를 '한다' 453명 중에서 '1병' 253명(55.8%), '2병' 118명(26.2%), '3병' 59명(13.0%), '4병 이상' 23명(5.0%)으로 나타났다. 흡연을 '한다'가 139명(12.9%), '안 한다' 937명(87.1%)로 나타났으며, 흡연 시작 시기는 응답한 139명 중 '10대' 99명(71.2%), '20대' 40명(28.8%), '30대' 0명(0.1%) 순으로 나타났다. 담배 갑 기준으로 1일 흡연량에서는 흡연을 '한다' 139명 중에서 '1갑'은 131명(94.3%), '2갑'은 7명(5.0%), '3갑'은 1명(0.7%)으로 나타났다. 음주와 흡연 등 약물남용이 가장 높은 시기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리적, 사회적 변화와 적응이 힘든 시기로 충동에 의해 다양한

남용약물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7,18].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음주와 흡연 행태도 청소년과 성인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19].

3.3 청년층의 남용약물에 종류 인식

J 지역 청년층들의 남용약물 종류에 대한 인식은 Fig. 1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 대상자 총 1076명 중에서 '대마류(대마초, 엑상대마)' 902명(83.8%), '필로폰(메스암페타민)' 708명(65.8%), '케타민' 297명 (27.6%), '프로포폴' 674명(62.6%), '수면(유도제)' 395명(39.7%), '집중력 강화제(머리 좋아지는 약)' 229명(21.3%), '식욕억제제(살빼는 약)' 309명(28.7%), '근육 강화제(스테로이드제)' 431명(40.0%) '해피벌룬(웃음풍선)' 532명(49.4%), 'GHB*' 302명(28.0%), '유해 화학물질(본드, 신나, 부탄가스 등)' 685명(63.7%), '술' 362명(33.6%), '담배' 521명(48.4%),으로 나타났다. 마약관리 법률에 근거한 대마류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이나 프로포폴, 본드 등은 남용약물로 높은 인식을 하고 있으나[20], 그 외의 약물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50%이하로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신경정신의학에서 발표한 약물사용실태에 관한 연구를 보면 낮은 인식을 갖고 있는 비마약성 약물의 사용 증가를 보고하고 있다[21].

Table 2. The current situation of drinking and smoking among young people (N=1076)

		N	(%)
drinking	yes	453	42.1
	no	623	57.9
drinking start time	10's	225	49.6
	20's	227	50.1
	30's	1	0.3
amount of alcohol/1time (based on soju)	1bottle	253	55.8
	2bottle	118	26.2
	3bottle	59	13.0
	4bottle or more	23	5.0
smoking	yes	139	12.9
	no	937	87.1
smoking start time	10's	99	71.2
	20's	40	28.8
	30's	0	0
amount of tobacco/1time (pack)	1pack	131	94.3
	2pack	7	5.0
	3pack	1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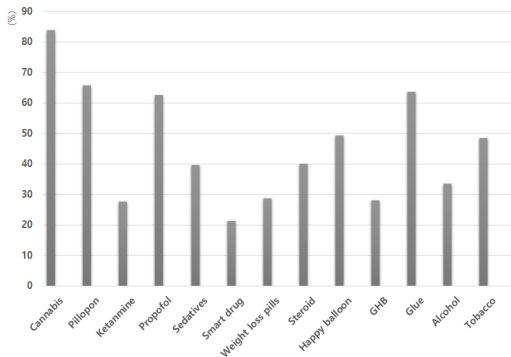


Fig. 1. Recognition of types of drug abuse among young people

3.4 청년층의 남용약물 폐해에 대한 인식

J 지역 청년층들의 남용약물 폐해에 대한 인식 정도는 Table 3와 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 대상자 총 1076명 중에서 남용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384명 (35.7%)가 '잘 알고 있다' 로 나타났다. 우리사회가 남용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445명(41.4%)가 '잘 알고 있다'고 나타났다. 남용약물이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가 249명(23.1%)로 나타났으며 '잘 모른다'는 442명 (41.1%)로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은 다양한 경로를 통한 약물의 접근과 익숙함에 의해 약물의 노출 증가[9]와 약물의 유해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우려된다[22]는 보고가 있다.

Table 3. Awareness of the harmful effects of drug abuse among young people

(N=1076)

		N	%
Awareness of the dangers of drug abuse	Know well	384	35.7
	Know a little	359	33.4
	Not at all	326	30.3
	No Answer	7	0.7
	total	1076	100.0
Attention and concern for the dangers of drug abuse	Know well	445	41.4
	Know a little	409	38.0
	Not at all	209	19.5
	No Answer	13	1.2
	total	1076	100.0
Recognition of various problems caused by drug abuse	Know well	249	23.1
	Know a little	372	34.6
	Not at all	442	41.1
	No Answer	13	1.2
	total	1076	100.0

3.5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개선방향

청년층들의 약물남용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Fig. 2에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자 총 1076명 중 '강력한 처벌' 577명(53.6%), '예방교육' 234명 (21.7%), '치료재활교육' 122명(11.3%), '홍보(계몽) 활동' 97명(9.0%) 순으로 나타났다.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는 Fig. 3에 제시되어있다. '학교 필수교육' 576명(53.5%), '고위험군 대상만 교육' 253명 (23.5%), 인터넷 온라인교육' 95명(8.8%), '교육 홍보 자료 교육' 93명(8.6%)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처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처벌 후 중요한 정책은 교육으로 나타났다. Cho 등은 약물남용 교육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를 비교 시 약물 남용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약물을 더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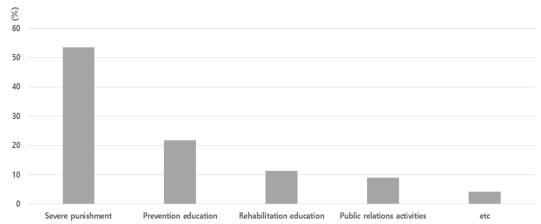


Fig. 2. A desirable way to improve the problem of drug abuse among young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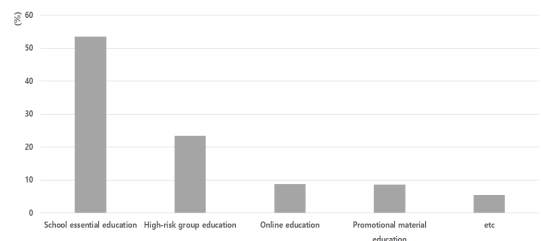


Fig. 3. Effective educational methods to prevent drug abuse among young people

4. 결론

본 연구는 청년층의 약물남용의 일반적인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약물남용 예방활동과 교육,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음주와 흡연은 대부분 10대에 처음 시작하였으며 마약관리 법률에 근거한 대마류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이나 프로포폴, 본드 등은 남용약물로 높은 인식을 하고 있으나 그 외의 약물에 대한 인식은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남용약물의 폐해에 대한 인식 중 남용약물이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약물남용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강력한 처벌'이었으며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는 '학교 필수교육'이었다. 약물남용은 처음 호기심으로 시작하더라도 약물남용단계 그리고 약물중독의 단계로 진행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단계에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 약물 남용에 의한 약물 중독은 거의 대부분이 재발될 수 있으므로 재활 대책 수립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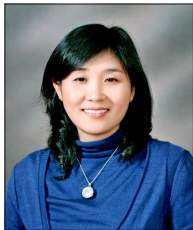
- [1] M. H. Lee. (2007). Knowledge and Attitudes of School Teachers Toward Tobacco, Alcohol, and Other Drug Use and School Health Policy.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6(3), 250-257.
- [2] Rehm, B. Taylor & R. Room. (2006). Global burden of disease from alcohol illicit drugs and tobacco. *Drug Alcohol Rev*, 25(6), 503-513.
- [3] S. Wang, W. Chen, C. LewTing, C. Chen & W. J. Chen. (2010). Running away experience and psychoactive substance use among adolescents in Taiwan : Multi-city street outreach survey. *BMC Public Health*.
- [4] M. H. Lee. (1996). Effects of drug education and human potential seminar/group therapy on the mental health status, and the knowledge of drugs among juvenile delinquents. *J. Korean Acad Psychiatry Mental Health Nurs*, 5(1), 5-16.
- [5] C. S. Park, C. Y. Eun & M. Y. Jeong. (1999).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and preventive strategies of adolescent drug abuse. *J Korean Acad Nurs*, 29(1), 127-138.
- [6] J. H. Lee & D. W. Kang. (2018). Current Situation of Youth Crimes Related with Substances Abuse and their Countermeasures. *Juvenile Protection Research* 31(4) 199-236.
- [7] S. N. Cho. (2013). Current Situation of Substance Abuse and Treatment Strategies. *medical laws*. 14(1), 11-36.
- [8] K. S. Han, S. Y. Moon, H. O. Park & E. H. Park. (2000). The Survey on the Drug use status, Knowledge and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Seoul and Northern Part of the Kyunggi-do).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2), 376-389.
- [9] K. B. Kim. (1998). *Investigation of the distribution and use of harmful substances among adolescents*.
- [10] J. S. Kim, O. S. Lee & S. C. Lim. (2013). Evaluation of Drug Information for Acquisition Methods and Risk of Drug Misuse in Korean Students. *Yakhak hoeji*, 57(1), 55-62.
- [11] H. J. Shin & S. S. Park (2015) The Study on Drug Use and Attitudes forward Drug Abuse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17(6), 183-206.
- [12] Korea Anti-Drugs Movement Headquarters. Report on the results of a public awareness survey on the severity of narcotics in 2019.
- [13] A. Steptoe, J. Wardle, W. Cui, A. Baban, K. Glass, A. Tsuda & J. Vinck. (2002).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obacco smoking, beliefs and risk awareness in university students from 23 countries. *Addiction*, 97(12), 1561-1571.
- [14] K. H. Kwon. (2004). National Survey on the Drug Abuse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 [15] I. S. Kwon. (1991) Effects of Approaches by Health Education Method on Changes in Drug Use Knowledge and Attitudes of High School Girls.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 [16] H. S. Park, M. H. Cho, G. Y. Cho & D. H. Kim. (2011). A Comparison of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Mental Health between Two Groups of Korea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1), 110-119.
- [17] H. K. Lee, S. J. Kim, S. C. Yoon, S. Y. Bong, H. J. Ahn & S. Y. Park. (2001). A Survey of Adolescent Substance Uses in a Small City.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40(1), 23-34.
- [18] L. Dusenbury, E. Khuri & R. B. Millman. (1992) : *Adolescent substance abuse. In : Substance Abuse, Comprehensive Textbook*. 2nd ed, 832-842.
- [19]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Available from: <http://cesi.kedi.re.kr/index.jsp>. Accessed Nov 10, 2011.
- [20] G. A. Fritz & W. E. Niemczyk. (2002). Propofol dependency in a lay person. *Anesthesiology*, 96(2), 505-506.
- [21] M. S. Lee & W. S. Ahn. (2011). Designation of a

new drug as a controlled substance.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4(2), 189-196.

- [22] A. K. Jha, G. J. Kuperman, E. Rittenberg, J. M. Teich & D. W. Bates. (2001). Identifying hospital admissions due to adverse drug events using a computer-based monitor. *Pharmacoepidemiol Drug Saf*, 10, 113-119.
- [23] Y. C. Cho & H. K. Yang. (2007). Knowledge and attitudes of some college students on general drugs that they use by self-judgment and status and relevant factors.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Health Promotion*, 24(1), 45-61.

최 봉 실(Bogn-Sil Choi)

[정회원]



- 1987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1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4년 8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지역사회정신건강
- E-Mail : choibs@nambu.ac.kr

박 정 숙(Jeong-Sook Park)

[정회원]



- 1996년 2월 : 원광대학교 약학과 (약학석사)
- 2002년 2월 : 원광대학교 약학과 (약학박사)
- 2006년 3월 : 남부대학교 대체의학과 교수

- 2014년 9월 ~ 현재 : 남부대학교 간호학과교수
- 관심분야 : 생약학, 면역학, 대체의학
- E-Mail : pk0207@nambu.ac.kr